

거주유형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노인단독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lderly'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Residence Types

- Focus on Single and Couple Elderly Households -

Author 정재훈 Jeong, Jae-Hoon / 정희원,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study the residence environment of the elderly residing in three different types of residence - the local community, silver towns and nursing homes and compare their level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as those aged 65 and older who live single and couple - 68 residing in the local community, 32 in silver town and 32 in nursing homes.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1) the residence environment is different in the three types of residence in terms of number of children, living with a spouse,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participation in group activities; 2) as for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is the highest among the elderly residing in the local community and declines among those in silver town and the lowest in nursing homes, which suggests that the local community still maintain the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however it declines in silver town and drop further in nursing homes. But in terms of instrumental support, there i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three types of residence. The result shows that the elderly residing in nursing homes are supported by systematic medical and residence service which make up for instrumental support similar to those in the local community and silver town; 3) life satisfaction is the highest among those residing in nursing homes, however there was little meaningful difference. The result means quality of living is similar among three different types of residence. What is interesting is those living in nursing homes has similar level of life satisfaction despite their lowest emotional support.

Keywords 노인단독가구, 거주주변환경,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Single and Couple Elderly Households, Residence Ambient Environment,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1. 서론

우리사회에서 인구고령화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¹⁾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0%로 향후 8년 후(2018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 14% 이상)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증가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시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노인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 또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는 1980년

2.1%에서 2010년에는 12.2%로 노인인구의 증가속도(3.9%, 10.7%)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가구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노인거주형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노인복지정책과 더불어 노인거주형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정책에서 의료서비스, 가사서비스, 생활서비스 등은 거주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노인단독가구의 거주유형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역사회에서 일반인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주형태이다. 이 경우 노인은 젊었을 때부터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 추계분석, 2005

지내왔던 주택과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생활하는 것(aging-in-place)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³⁾ 왜냐하면 거주이동은 옛 친구나 이웃과의 결별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이동에 따른 복잡한 과정 때문에 노인에게 감정적 스트레스를 야기시킬 수 있고, 새로운 환경이 아무리 바람직한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주 전의 환경과 이주 후의 환경 간의 차이에 쉽게 융화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부정적인 경험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⁴⁾ 둘째는 노인전용주거단지로서, 서비스를 받으며 노인들끼리 생활하는 실버타운(silver town)⁵⁾과 같은 거주형태이다. 학력이 높아지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층이 늘어나면서 자녀나 사회의 도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노년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바람이 커지고 있다. 셋째는 의지할 데 없는 노인을 수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공동생활을 하는 양로원과 같은 거주형태이다. 경제적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렵고 자녀에게도 지원을 받기 힘든 노인들은 생활이 힘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무기력해지기 쉽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국가, 자선단체, 개인 등의 지원하에 주거, 가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노인주거문제는 노인의 정서, 건강, 생활, 경제능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용한 거주유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보다 나은 대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현재의 여러 거주형태에서 노인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반응과 평가들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노인주거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실버타운, 양로원 등 세 가지 거주유형에 따라 노인의 거주주변환경을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거주주변환경은 거주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거주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거주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고찰

2.1. 노인의 거주주변환경

거주유형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으로서 물리적 요소와 사회인구학적 요소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노인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약화로 인해 일반인보다 주변환경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먼저 물리적 요소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편의성과 교통편의성은 노인의 사회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가까운 거리 내에 구비되어 있는 근린생활권은 노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사회적 고립상태를 탈피하게 하며⁷⁾, 또한 교통수단의 편리성은 노인에게 자녀나 친구, 친척 등의 접근을 쉽게 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소로서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 중에서 거주유형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수, 배우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사정, 그리고 단체참여도 등을 선정하였다. 여기서 인구학적요소인 자녀수, 배우자유무 등의 변수를 추가하는 이유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노인에게 배우자나 자녀수 등은 정서적 지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에게 자녀는 정서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이며⁸⁾, 배우자 유무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⁹⁾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태현 등(1999)¹⁰⁾은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양호한 노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Johnson & Krueger(2006)¹¹⁾는 경제사정의 객관적 지표보다는 그에 대한 주관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박순미(2010)¹²⁾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3) 김대년·권오정, 노인요양시설 입주 의사가 있는 한국 중년층의 노후 전망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과 선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1(1), 2005

4) 서유석, 고령화사회의 도전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계획, 건축학회지 0306, 2003

5) 본 연구에서 실버타운(silver town)은 노인이 전액 자기부담으로 급식·건강관리·여가생활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생활하는 주거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춘 마을로서 입대를 통하여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된다.

6) 본 연구에서 양로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수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제31조)에서는 양로시설에 해당된다.

7) 서유석, 앞의 논문

8) 한경혜, 농촌단독가구 노인의 자녀관계, 한국노년학, 16(2), 1996
이신숙·이경주,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1), 2002

9) 안경숙, 노인부부가구, 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1), 2005

10)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예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 19(1), 1999

11) Johnson, W. & Krueger, R.F., How money buys happiness: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es linking finance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4), 2006

12) 박순미,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47, 2010

2.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에 대한 관점은 학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와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를 제시하고 있다. 정서적 지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받거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적 측면이며, 도구적 지지는 신체활동의 제한 등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직접 도와주거나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¹³⁾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에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 등을 감소시키거나 완화시켜 줌으로써 개인의 위기나 변화가 왔을 때 적응을 도와주고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게 하여 결국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¹⁴⁾ 안경숙(2005)¹⁵⁾은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상실과 소외감을 감소시키는 요소로서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가구보다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단독가구에 제공될 때 효과가 더 크며, 배우자는 주로 정서적 지지를 하는 반면 자녀는 신체적, 경제적 측면에서 도구적 지지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¹⁶⁾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3. 삶의 만족도

노인이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정도는 삶의 질을 확인하는 유용한 개념이다. 이때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란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변화에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이다(Kalish, 1975).¹⁷⁾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이 갖는 삶의 만족도는 한 개인이 노화되어간다는 현실에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태, 즉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¹⁸⁾ 결국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충족의 합치 여부에서 오는 주관적 만족감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환경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생활의 역사를 통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감정이다.¹⁹⁾ 지금까지 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는 성공적인 노화

의 주요 종속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자녀들과 떨어져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²⁰⁾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지역사회, 실버타운, 양로원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은 대도시에서 살면서 자녀와는 떨어져 단독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도시 전역에 걸쳐 임의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 조사대상인 실버타운은 농촌소도시 근교에 건설한 노인복지타운으로서 노인전용아파트에 각 세대별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임대방식으로 2000년부터 입주하여 매달 적은 비용의 관리비를 납부한다. 단지 안에는 노인전문병원 및 복지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유료로 의료·식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고 복지관에서는 무료로 매일 레저·문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면서 시의 지원은 줄었다. 세 번째 조사대상인 양로원은 2005년부터 복지법인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곳으로 소도시근교에 관리동과 여러 개의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그만 마을과 같은 분위기이다. 각 주택마다 7-8명씩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하면서 가능한 자체적으로 식사, 청소, 빨래 등을 해결하며 최대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노인들만 도우미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정기적으로 외부의료진이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으며 매주 레저·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3.2. 측정도구

주거주변환경은 물리적 요소로서 생활편의성과 교통편의성 등의 2개 항목과 사회인구학적요소로서 자녀수, 배우자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사정, 단체참여도 등의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측정방법에서 성별(남=1, 여=2), 배우자 유무(없음=1, 있음=2) 등은 명목적으로 측정하였으며 연령(65세이상-69세이하=1, 80세이상=4), 학력(무학=1, 대학졸업 이상=5), 자녀수(없음=1, 5명 이상=4) 등은 서열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경제사정(나쁨=1, 보통=2, 좋음=3), 단체참여도(참여 안함=1, 가끔 참여=2, 자주 참여=3), 그리고 생활편의성과 교통편의성 (불편=1, 보통=2,

13) 안경숙, 앞의 논문

14) 이신숙·이경주,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1), 2002

15) 안경숙, 앞의 논문

16) 고보선, 제주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1), 2003

허준수,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4(여름), 2004

17) 김정선, 가정노인과 양로원노인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능력,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8(1), 1998, p.151 재인용

18) 김정선, 앞의 논문

19) 허준수, 앞의 논문

20) 본 연구에서는 노인 혼자 또는 노인 부부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가구, 그리고 여러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양로원도 포함한 광의적 의미로 사용된다.

편리=3) 등은 각각 3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나누어 안경숙(2005)이 사용한 각각의 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정서적 지지는 '속마음을 얘기할 상대가 있는가', '관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존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등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도구적 지지는 '집안일에 지지를 받고 있는가', '몸이 아플 때 지지를 받고 있는가', '돈이 필요할 때 지지를 받고 있는가'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2)', '그렇다(3)'의 3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이 정서적으로 또는 도구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653$ 이었다.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요즘 살맛이 나는가', '생활에 만족하는가', '생활이 따분한가' 등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2)', '그렇다(3)'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전체만족도는 3개 문항을 평균하여 산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35$ 로 나타났다.

3.3. 표집방법

설문조사는 연구설계에 따른 설문문항을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예비조사는 연구목적에 알아보기 위해서 1차로 작성한 설문지의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노인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설문문항에 대한 노인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여 설문문의 문구를 조정하였다. 그리고 문항의 척도에 대한 분별력이 다소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5점척도에서 3점척도로 조정하였다. 또한 난이도를 고려하여 설문문의 순서를 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는 2010년 7월 5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정, 공원, 복지회관, 그리고 양로원 등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응한 노인 140명을 대상으로 직접조사방법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 후 회수된 것 중에서 답변내용이 누락됐거나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132부를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3.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비율의 일원적 기술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거주유형에 따른 거주주변환경, 사회적 지지 및 삶의 만족도는 세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고자 일원변량분석(ANOVA)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조사대상자는 지역사회노인 68명, 실버타운노인 32명, 양로원노인 32명이었으며 남자가 41.3%, 여자가 58.7%이었다. 지역사회노인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다소 낮았고 학력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양로원 노인은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았고 무학인 경우도 58%이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명, %)

구분		지역사회노인	실버타운노인	양로원노인	전체
성별	남	32(47.1)	12(38.7)	8(29.6)	52(41.3)
	여	36(52.9)	19(61.3)	19(70.4)	74(58.7)
연령	65세이상-69이하	7(10.3)	1(3.1)	1(3.1)	9(6.8)
	70세이상-74이하	12(17.6)	2(15.6)	5(15.6)	22(16.7)
	75세이상-79이하	26(38.2)	8(25.0)	9(28.1)	43(32.6)
	80세이상	23(33.8)	18(56.3)	17(53.1)	58(43.9)
학력	무학	11(16.2)	11(34.4)	18(58.1)	40(30.5)
	초등 졸업	25(36.8)	11(34.4)	7(22.6)	43(32.8)
	중등 졸업	13(19.1)	9(28.1)	5(16.1)	27(20.6)
	고등 졸업	13(19.1)	0(0.0)	1(3.2)	14(10.7)
	대학 졸업 이상	6(8.8)	1(3.1)	0(0.0)	7(5.3)

4.1. 거주유형에 따른 거주주변환경

먼저 노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주주변환경요소들을 조사하여 거주유형별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자녀수, 배우자 유무, 단체참여도, 그리고 주관적 경제사정 등에서 노인의 거주유형에 따라 구분한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표 2> 거주유형에 따른 거주주변환경에 대한 분산분석(ANOVA) 결과

분산분석(ANOVA)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value	유의확률
자녀수	집단-간	40.21	2	20.11	28.66	.000***
	집단-내	89.81	128	.70		
	합계	130.02	130			
배우자유무	집단-간	9.16	2	4.58	26.97	.000***
	집단-내	21.90	129	.17		
	합계	31.06	131			
단체참여도	집단-간	5.03	2	2.51	3.57	.031*
	집단-내	90.85	129	.70		
	합계	95.88	131			
주관적 건강상태	집단-간	.70	2	.35	.49	.615
	집단-내	91.82	129	.71		
	합계	92.52	131			
주관적 경제사정	집단-간	2.93	2	1.46	4.49	.013*
	집단-내	42.06	129	.33		
	합계	44.99	131			
교통편의성	집단-간	.85	2	.43	.66	.517
	집단-내	82.10	128	.64		
	합계	82.95	130			
생활편의성	집단-간	.12	2	.06	.10	.905
	집단-내	77.95	127	.61		
	합계	78.07	129			

*p<0.05, **p<0.01, ***p<0.001

건강상태에서는 세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교통편의성과 생활편의성에 대해서도 거주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실버타운이나 양로원이 지리적으로 도시근교에 위치하여 교통시설과 편의시설로의 물리적 접근이 어렵지만 수시로 셔틀버스가 운행되어 있어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1) 거주유형별 자녀수

자녀수는 <표 3>에서 보듯이 지역사회노인이 3.12, 실버타운노인은 3.06인 반면, 양로원노인은 1.81로 현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료양로원의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로원에는 자녀수가 적은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거주유형별 자녀수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지역사회노인	3.12	.76	.09	2.93	3.30
실버타운노인	3.06	.81	.15	2.77	3.36
양로원노인	1.81	.99	.18	1.45	2.17
전체	2.79	1.00	.09	2.61	2.96

(2) 거주유형별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무에서도 <표 4>에서와 같이 지역사회(1.63)에 비해 실버타운(1.16)과 양로원(1.06)에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더 많았다. 이는 서로 의지했던 배우자와의 사별 후 외롭게 혼자 사는 것보다 노인시설에 입주하여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거주유형별 배우자 유무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지역사회노인	1.63	.49	.06	1.51	1.75
실버타운노인	1.16	.37	.07	1.02	1.29
양로원노인	1.06	.25	.04	.97	1.15
전체	1.38	.49	.04	1.29	1.46

(3) 거주유형별 단체참여도

일상생활에서 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지역사회노인(1.93)과 양로원노인(1.91)은 낮은 반면 실버타운노인은 자주 참여하는 것(2.38)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는 실버타운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매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노인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5> 거주유형별 단체참여도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지역사회노인	1.93	.87	.11	1.72	2.14
실버타운노인	2.38	.79	.14	2.09	2.66
양로원노인	1.91	.82	.14	1.61	2.20
전체	2.03	.86	.07	1.88	2.18

(4) 거주유형별 주관적 경제사정

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사정은 <표 6>에서 보듯이 지역사회노인(1.91)과 실버타운노인(1.90)에 비해 양로원노인(1.56)이 경제적으로 좀 더 힘들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료양로원이 절대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노인을 입주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며, 또한 양로원노인의 자녀수가 적은 것도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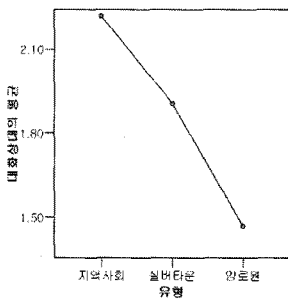
<표 6> 거주유형별 주관적 경제사정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지역사회노인	1.91	.51	.06	1.79	2.04
실버타운노인	1.90	.64	.11	1.68	2.14
양로원노인	1.56	.62	.11	1.34	1.79
전체	1.83	.59	.05	1.72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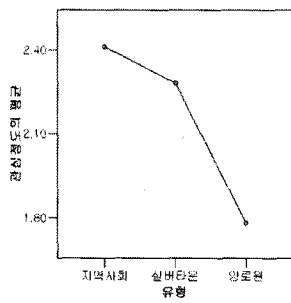
4.2. 거주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1) 거주유형에 따른 정서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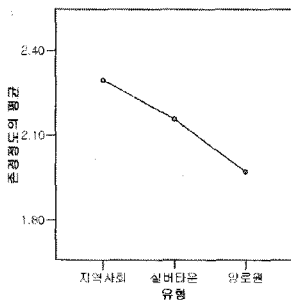
정서적 지지는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속마음을 얘기할 상대가 있는가(대화상대), 관심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관심 정도), 존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존경 정도) 등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대화상대, 관심 정도, 존경 정도, 그리고 세 항목을 평균한 정서적 지지에서 지역사회노인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실버타운노인은 중간 정도의 지지를, 그리고 양로원노인이 가장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대화상대 항목에서는 <그림 1>에서 보듯이, 지역사회노인이 평균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버타운노인이 평균 1.91, 그리고 양로원노인이 평균 1.47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이들 세 집단 간에는 <표 7>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는 마음속에 담고 있는 고민이나 속사정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가 지역사회노인이 양로원노인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심 정도 항목에서도 <그림 2>에서와 같이 지역사회노인(2.41), 실버타운노인(2.28), 양로원노인(1.78)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1). 다음으로 존경 정도 항목에서는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지역사회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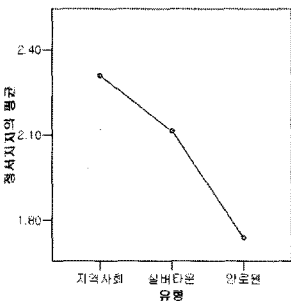
<그림 1> 거주유형별 대화상대



<그림 2> 거주유형별 관심 정도



<그림 3> 거주유형별 존경 정도



<그림 4> 거주유형별 정서적 지지

<표 7> 거주유형에 따른 정서적 지지

구분	평균	표준편차	F-value	유의확률
대화상대	지역사회노인	.222	8.87	.000***
	실버타운노인	.191		
	양로원노인	.147		
관심 정도	지역사회노인	.241	6.70	.002**
	실버타운노인	.228		
	양로원노인	.178		
존경 정도	지역사회노인	.229	2.38	.097
	실버타운노인	.216		
	양로원노인	.197		
(전체) 정서적 지지	지역사회노인	.231	10.77	.000***
	실버타운노인	.211		
	양로원노인	.174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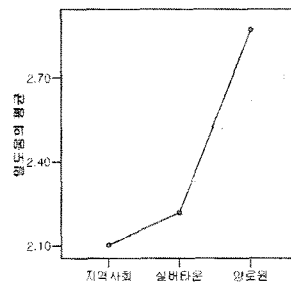
인이 2.29, 실버타운노인이 2.16, 양로원노인이 1.97로 조사되었으며 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세 집단의 노인에게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 항목을 평균한 전체적인 정서적 지지에서는 <그림 4>에서와 같이, 지역사회노인(2.3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실버타운노인(2.11), 양로원노인(1.74)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이는 지역사회노인의 경우 가족, 친척, 친구와의 빈번한 왕래를 통해 심리적으로 긍정적 자극을 받는 반면 실버타운노인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이 약해지고 양로원노인의 경우 가족과 사회에서 멀어지면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긍정적 지지에 대한 자극을 적게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초기에 정서적 지지를 약하게 받는 노인층이 가족이나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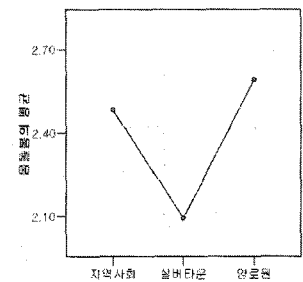
를 포기하고 노인시설로 입주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는 추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거주유형에 따른 도구적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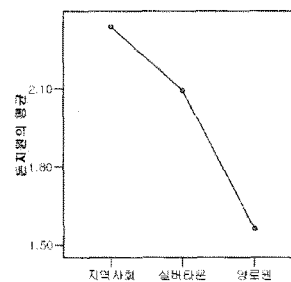
도구적 지지도 3개 항목으로 나누어 집안일에 지지를 받고 있는가(일 도움), 몸이 아플 때 지지를 받고 있는가(몸 돌봄), 돈이 필요할 때 지지를 받고 있는가(돈 지원) 등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서적 지지와는 달리 항목별로 큰 변화를 보였다. 먼저 집안일에 대한 지지에서는 <그림 5>에서와 같이, 지역사회노인(2.10)과 실버타운노인(2.22)보다는 양로원노인(2.87)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 집단 간에는 <표 8>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는 양로원의 경우 가사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특히 도우미가 있어 식사, 청소, 빨래 등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몸이 아플 때 지지는 <그림 6>에서 보듯이, 실버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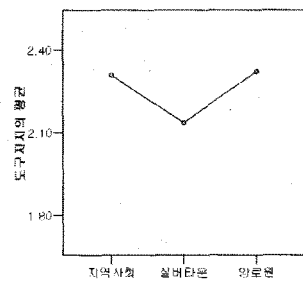
<그림 5> 거주유형별 일 도움



<그림 6> 거주유형별 몸 돌봄



<그림 7> 거주유형별 돈 지원



<그림 8> 거주유형별 도구적 지지

지지 <표 8> 거주유형에 따른 도구적 지지

구분	평균	표준편차	F-value	유의확률
일 도움	지역사회노인	.210	8.88	.001**
	실버타운노인	.222		
	양로원노인	.287		
몸 돌봄	지역사회노인	.249	3.99	.021*
	실버타운노인	.209		
	양로원노인	.259		
돈 지원	지역사회노인	.234	10.58	.000***
	실버타운노인	.209		
	양로원노인	.156		
(전체) 도구적 지지	지역사회노인	.231	1.13	.326
	실버타운노인	.214		
	양로원노인	.232		

*p<0.05, **p<0.01, ***p<0.001

노인(2.09)보다는 지역사회노인(2.49)과 양로원노인(2.59)이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지역사회노인은 자녀에게서, 양로원노인은 도우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실버타운노인의 경우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유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돈이 필요할 때 지지는 <그림 7>에서와 같이, 지역사회노인(2.34), 실버타운노인(2.09), 양로원노인(1.56)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그런데 3개 항목을 평균한 전체적인 도구적 지지에서는 <그림 8>에 나타나듯이, 세 집단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지역사회노인은 돈 지원의 지지는 높았던 반면 일 도움의 지지는 낮았고 양로원노인은 일 도움의 지지는 높았던 반면 돈 지원의 지지는 낮았던 것처럼 도구적 지지에서는 항목별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역사회노인, 실버타운노인, 양로원노인은 유사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3. 거주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요즘 살맛이 나는가(살맛 정도), 생활에 만족하는가(생활만족), 생활이 따분한가(따분 정도) 등을 조사하여 3개 항목의 평균치를 전체만족도로 하였다. 이런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살맛 정도에서는 양로원노인이 2.1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버타운노인이 2.13, 지역사회노인이 2.00 순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세 집단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세 집단에서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살맛나는 정도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생활만족에서도 지역사회노인이 2.24, 실버타운노인이 2.38, 양로원노인이 2.59로 세 집단 간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생활따분 정도에서는 지역사회노인(2.15)과 실버타운노인(2.25)에 비해 양로원노인(2.41)이 가장 낮은 것²¹⁾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9> 거주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F-value	유의확률	
살맛 정도	지역사회노인	2.00	.73	0.55	.576
	실버타운노인	2.13	.83		
	양로원노인	2.16	.81		
생활만족	지역사회노인	2.24	.71	2.69	.072
	실버타운노인	2.38	.79		
	양로원노인	2.59	.67		
따분 정도	지역사회노인	2.15	.76	1.18	.310
	실버타운노인	2.25	.92		
	양로원노인	2.41	.71		
(전체)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노인	2.13	.62	1.87	.159
	실버타운노인	2.25	.72		
	양로원노인	2.39	.55		

* $p < 0.05$, ** $p < 0.01$, *** $p < 0.001$

앞의 3개 항목을 평균한 전체적인 만족도에서도 지역사회노인이 2.13, 실버타운노인이 2.25, 양로원노인이 2.39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적 지지를 적게 받고 있는 양로원노인에게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자녀들과 떨어져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주변환경, 사회적 지지,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거주유형에 따라 지역사회, 실버타운, 양로원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주변환경에서는 자녀수, 배우자 유무, 주관적 경제사정, 그리고 단체참여도에서 노인의 거주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노인에게서 자녀수가 많고 부부가구가 많으며 경제사정이 좋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실버타운노인은 단체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양로원노인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상태, 교통편의성, 생활편의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지역사회노인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과의 지지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양로원노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취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주주변환경에서는 지지체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 중에서 정서적 지지에서는 지역사회노인이 가장 높고 실버타운노인, 양로원노인 순으로 낮아지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역사회노인은 기존의 지지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실버타운에 입주하면서 다소 약화되고 양로원노인의 경우에는 더욱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구적 지지에서는 세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집안일 도움체계에서는 양로원에서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인 지원체계에서는 지역사회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세 집단 간의 항목별 지지에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유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삶의 만족도에서는 양로원노인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

21) 생활따분 정도에 대한 응답은 다른 항목과의 동일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1)', '보통이다(2)', '그렇지 않다(3)'로 산정하여 분석결과가 3에 가까울수록 생활따분 정도가 낮아서 만족도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았다. 이는 가정노인이 양로원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김정선(1998)²²⁾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나 민주홍·한경혜(2007)²³⁾는 6개월간의 심층면접을 통해 거주지 이전으로 사회관계망이 축소되어 일견 부정적일 것으로 보이는 노인들이, 적응해 가면서 삶에 대한 사고방식이 상당히 능동적으로 바뀌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입소 당시의 낮은 기대치가 오히려 만족도를 높게 하는 요인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가연·배두이(2004)²⁴⁾는 양로원노인의 입소동기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사회노인의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체계는 잘 유지되고 있으나 의료·가사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도시 지역사회는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이러한 시설은 규모가 크고 서비스 반경이 크기 때문에 노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과 노인을 원활히 연결해주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와 떨어져 노인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의료·가사 서비스 등 도구적 지지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기존의 정서적 지지체계가 원활히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지지체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나 도우미는 가사도움과 함께 노인과의 꾸준한 대화 등을 통해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들끼리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하며 식사, 청소, 빨래 등은 가능한 스스로 해결하며 노인들 간에 가족과 같은 심리적 유대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거주유형에 따른 사례 수가 적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노인들은 자신의 생애나 가족과의 관계 등 사적인 부분을 말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종단적 관찰과 심층면접을 통한 정성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고보선, 제주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1), 2003
2. 김대년·권오정, 노인요양시설 입주 의사가 있는 한국 중년층의 노후 전망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식과 선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1(1), 2005
3. 김정선, 가정노인과 양로원노인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능력,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8(1), 1998

22) 김정선, 앞의 논문

23) 민주홍·한경혜,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노인의 사회관계망 변화와 적응, 한국노년학 27(4), 2007

24) 이가연·배두이, 유료시설노인의 입소동기 및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4(2), 2004

4.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 19(1), 1999
5. 민주홍·한경혜, 거주지 이동을 경험한 노인의 사회관계망 변화와 적응, 한국노년학 27(4), 2007
6. 박순미,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47, 2010
7. 서유석, 고령화사회의 도전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계획, 건축학회지 0306, 2003
8. 안경숙, 노인부부가구, 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1), 2005
9. 이가연·배두이, 유료시설노인의 입소동기 및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4(2), 2004
10. 이신숙·이경주,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1), 2002
1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노인용품 및 주거시설 등에 관한 수요공급 추계분석, 2005
13. 한경혜, 농촌단독가구 노인의 자녀관계, 한국노년학 16(2), 1996
14. 한혜원, 노년기 여가참여와 삶의 질 인지와의 관계,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0
15. 허준수,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4(여름), 2004
16. Johnson, W. & Krueger, R.F., How money buys happiness: Genetic and environmental processes linking finance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4), 2006
17. Kalish, R.A.,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ey: Cole Publishing Co., 1975

[논문접수 : 2010. 08. 31]

[1차 심사 : 2010. 09. 17]

[2차 심사 : 2010. 10. 12]

[게재확정 : 2010. 11. 05]